



# 마창대교 그 아름다움에 빠지다



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인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 '사랑의 열매' 공익 기부, 저소득계층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스크 등 안전용품 기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 경남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마창대교

마창대교를 중심으로 창원권과 연계한 경남의 명소는 관광의 보고라고 할 만큼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가 많다. 주요 축제로는 진해의 군항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고성세계공룡엑스포, 통영 한산대첩제, 거제 섬꽃축제, 하동 토지문학제 등이 있다.

서부권 축제는 진주 개천예술제와 세계적 유등축제로 떠오른 진주 남강 유등축제, 합천대장경 문화축전, 산청 한방축제, 함양의 지리산 철쭉 축제 등이 경남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 주요 먹거리 관광

마산 오동동의 아귀찜과 진동의 미더덕찜, 사천의 전어회, 고성·통영·거제·남해 청정해역의 굴 요리, 전통 있는 진주비빔밥, 의령의 메밀국수와 장터국밥, 산청의 한방 산채 요리 등이 관광객의 입맛을 돋우는 지역 특산 먹거리들이다.

### 즐기며 머무는 관광

남해안의 청정해수욕장, 창녕 부곡, 창원 북면의 온천장, 창원, 남해, 진주, 거창, 밀양, 고성, 함안, 함양, 산청에는 새로운 레저 트렌드인 상설 캠핑장이 곳곳에 설치돼 가족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마창대교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 고장의 관광명소를 사통팔달 연결하는 관광 대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❶

### 마음이 따뜻한 대교 사람들

마창대교를 건너면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맞이하는 요금수납원과 마주하게 돼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진다. 마창대교는 다양

경남 창원을 자동차로 지나면 바다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해상 하이브리지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지난 2008년 개통된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길이 17km의 마창대교다.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오가는 대형 화물선 통행을 위해 다리높이를 64m로 높게 건설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도로 안정성을 위해 사장교 형식을 선택했다. 개통 당시에는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해상대교로 유명세를 치렀다. 대교 개통으로 기존 시내 도로 우회 시보다 거리로는 7km, 시간으로는 28분이 단축,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사계절 아름다운 마창대교, 드라이브 명소로 거듭나다

마창대교는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마산만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밤 조명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낭만과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한다.

야간조명은 지역민은 물론 도로 이용자들이 봄·여름·가을·겨울 철 따라 색다른 정취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전국의 사진 마니아들이 입소문을 타고 즐겨 찾는 촬영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원범식(오른쪽) 대표이사가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